

[26] 정 기 룡

오천 년이라는 짧지 않은 역사를 이어오는 동안 우리 주변 국가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여 이제는 그 흔적조차도 찾아보기 어려운 나라도 있지만 우리 한 민족만은 한 핏줄로 한반도에서 굳건히 나라를 지켜 왔다.

수백 번, 수천 번의 국난을 겪으면서도, 이를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때마다 충신 또한 많았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가장 큰 난리 중의 하나인 임진왜란도 지혜롭고 용감한 충신이 많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 풍전등화와 같은 나라를 건질 수 있었다.

이 임진왜란 때 큰 공을 세우신 분 중의 한 분이 정 기룡장군 이시다. 그분의 초명은 무수요. 자는 경운. 호는 매헌이셨다.

명종때 딸만 셋이던 정 좌찬성은 대를 잇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속에서 산실에 들어간 부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 나절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자 집안 식구들까지도 모두 애를 태웠다. 이 때 하늘을 가르는 비명 소리와 함께 아기 울음 소리가 들려왔다. 도련님이시라는 말을 전해 들은 대강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이렇게 귀하게 얻은 옥동자는 복을 누리며 오래 살라하여 이름을 무수라 지었다.

무수도령은 나이를 먹어 걷고 뛰고 할 수 있게 되자 동네 아이들을 때려 울리고 활과 칼을 가지고 다니며 동네의 향아리를 깨고 개나 닭을 못 살게 했다. 그러나 동네 사람은 무수도령의 또릿또릿한 눈길때문에 감히 말을 못했다 한다. 어릴때부터 장난삼아 했던 칼싸움 활싸움이 후에 명장이 되는데 큰 도움을 주었던 것 같다. 또한, 어릴때부터 영리하기로도 온 동네에 소문이 나 있었던 무수는 어느날 먼길을 떠나야만 하는 사정이 생겼다. 그는 걸음을 재촉해서 걸어가고 있을 때 어느 나그네를 만났다. 두 사람은 목적지 방향이 같아서 동행을 하게 되었다. 날이 저물어 주막을 찾는데 주막이 보이지 않아 그들은 어느 집에서 하루를 유하기로 하고 대문을 두르렸다. 사람이 나오자 사정 얘기를 하고 하루만 신세를 지고자 했으나 다른 곳을 찾아 보라고 하고 문을 닫으려할 때 주인인 김진사가 나와 이들을 안으로 모시고 극진히 대접을 했다. 하루밤을 편안히 지내고 주인께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다시 목적지를 향해 걸음을 재촉하고 있을때, 어디서 왔는지 어떤 사람들이 무수와 동행하는 나그네를 붙잡는 것이었다.

자세히 보니 그는 어젯밤 신세를 진 김진사댁의 하인들이었다. 그래서 무수는

"이게 무슨 짓이냐?"

하고 물었다. 하인이 대답하기를

"어젯밤 저의 댁에 대대로 내려 오던 벼루가 없어졌다 하여 김진사께서 이 사람을 잡아오라 하셨습니다."

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들과 함께 김진사댁으로 갔다. 김진사는 화를 버럭 내면서

"감히 고마움을 모르고 남의 집 가보를 훔치다니"

호통을 쳤다. 그러나 그 나그네는 한사코 자기가 훔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그래서 김진사는 그 사람의 짐을 풀어보라 했다. 그러나 그 속에선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때 마침 포졸이 와서 이 벼루가 댁의 것이냐고 물었다. 김진사는 벼루를 보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김진사는 자신의 실수를 용서해 달라며 나그네에게 몇 번이고 사과를 했다. 이때 나그네가 김진사에게

"왜 무수와 함께 동행을 했는데 나만 의심하셨소?"

하고 물었다. 그러자 김진사를 기다렸다는 듯이

"무수는 군자다운 맛이 풍기는데, 당신은 그런 맛은 찾아 볼래야 찾아 볼 수 없고 덜렁대기만 하니 당신을 의심할 수 밖에 없었소."

이 일화야 말로 무수의 인품이 어떠했는가를 말해주는 좋은 자료라 할 것이다.

그분이 무과에 급제하여 공을 세우고 이름을 떨치자 선조께서 꿈에 종루가에서 용이 등천하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여 사람을 보내 확인을 하시니 그 분이 계셨다고 한다. 그래서 선조께서는 기룡이란 이름을 하사하였다 한다. 그 분은 모든 일에 능숙하며 사람됨이 청백강개하며 타인이 곤궁에 처해 있을 때에는 잘 돌보아 주었다.

어느날인가 저녁을 먹을 무렵 한 나그네가 하루 저녁 묵고갈 것을 간청하였다. 정 기룡장

군은 서슴지 않고 이를 허락하였다. 그리고 저녁상까지 극진히 대접하였다. 그러나 나그네는 마땅히 그러려니 하였다. '외모를 보면 형상군고 차갑게 느껴지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

정 기룡장군은 나그네의 모습이 자꾸 떠올라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 장군은 부스럭 소리에 잠시 눈을 떴다. 그러나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그래서 다시 잠을 청하려고 눈을 감았을때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장군은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그를 지켜 보았다. 방으로 들어온 사람은 오늘 저녁에 목고 가기로 한 나그네였다. 건장한 체격에 우락부락하게 생긴 그의 얼굴에 싸늘한 미소가 일더니 장군의 목에 칼을 드리웠다. 그러나 장군은 크게 웃으며 여유 있게 말했다.

"오늘 저녁상이 진수성찬이라 과했나 보구려, 겨우 진수성찬의 보답이 이거란 말이요? 당신은 도대체 어떤 사실인지 모르나 용기가 대단하군."

나그네는 격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 놈은 살인자, 네놈이 우리 아버지를 죽였지? 나는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몇 년 동안 칼을 갈면서 이날을 기다렸다. 오늘에야 너의 집까지 오게 되었구나!" 장군은 어리둥절했다. 어떻게 이 사람을 설득할 수 있을까 말이 나오질 않았다. 잠시 후 장군은

"어떤 원한을 품고 있는지 말이나 해보게"

하고 말씀하셨다. 나그네는 아버지의 원한을 다 이야기하고 숨이 가쁜 목소리로

"나의 원수 이 기룡"

하고는 금방이라도 죽일 기세를 하였다. 장군은 한숨을 푹 쉬고는

"나는 이 기룡이 아니요, 나는 정 기룡이란 말이오"

하고 말했다. 나그네는 들이댔던 칼을 방바닥에 떨어뜨렸다. 실수로 엉뚱한 사람을 죽이려 했던 자신이 부끄러운 나머지 나그네는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다. 장군은 너그러이 용서하며 같이 이 기룡을 찾기로 했다. 그러나 이 기룡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그래서 장군은 나그네에게

"어찌 이 세상에 죄없는 자가 있으며 원한 있는 사람이 너하나 뿐일까? 그러나 지나간 일은 모두 잊어 버려라"

하고 타일렀다. 그 이후로 나그네는 착하게 살았다고 한다. 참으로 장군다운 행동이시다.

죽음앞에서도 침착할 수 있고 자신의 목에 칼을 댔던 자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그분의 인품과 도량을 말해주는 일이 아닐까?